조달청이 만든 국가기술자격, 공공조달관리사 설명회 현장 직접 다녀왔 습니다!

공공조달관리사

2025/10/01 08:00

http://blog.naver.com/kangsan2023/224027231956



공공조달관리사가 온다

2026년 하반기 첫 시험 예정

조달 전 과정을 총괄하는 실무형 국가기술자격

직접 다녀온 공공조달관리사 설명회,

? 생생 후기

안녕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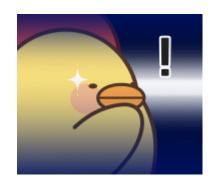
오늘은 제가 직접 다녀온 공공조달관리사 설명회 후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조달청과 산업인력공단이 함께 준비한 이번 설명회는,

앞으로 첫 시험을 준비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가득했어요.

설명회 분위기 자체가 꽤 뜨거웠습니다.

발표자들도 "이건 단순 시험이 아니라 공공조달 생태계의 대전환"이라고 표현할 정도였거든요.







공공조달관리사, 왜 필요한가?

설명회에서 가장 많이 강조된 부분은 *시장의 변화와 전문인력의 부재* 였습니다.

조달 규모는 2014년 111조 → 2024년 225조로 2배 성장

조달기업도 60만 곳, 발주기관도 7만 곳에 달함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입찰·계약·검수까지 총괄할 전문 인력이 없어 브로커나 컨설턴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들으니, 이 자격이 단순 시험이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의 판을 바꿀 제도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조달시장 급성장의 현실

22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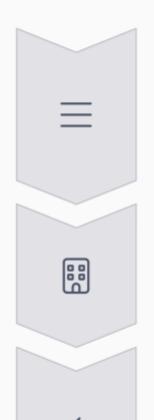
60만

2024년 조달 규모 2014년 111조에서 2배 증가 참여 기업 수 29만에서 대폭 확대

7.1만

발주기관 수 4.8만에서 지속 증가

주요 역할과 업무



조달기업

입찰부터 검수까지 총괄 관리, 오류 최소화로 리 스크 예방

수요기관

계약담당자 역량 강화, 민원·분쟁 사전 차단

분쟁대응

이의신청·감사 대응 문서 작성, 법적 논리 기반 전문 대응

시장 변화

조달 규모(2014년 111조 → 2024년 225조), 기업 수(29만→60만), 발주기관(4.8만→7.1만) 모두 2배 가까이 증가

문제점

절차 복잡화(직접생산확인, 공동수급약정, 계약특약, 검수 등)

→ 누락·실수 시 입찰무효·계약해지·행정처분으로 이어짐

공백

기존에 조달 실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자격이 없어 브로커나 무자격 컨설턴트에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

'A사'의 사례

유효기간 만료, 협정서 오류, 규격 불일치 등으로 1년간 입찰 참가 제한. 전문 인력이 있었다면 예방 가능



현장의 아픈 손가락

절차 복잡화

직접생산확인, 공동수급약정, 계약특약, 검수 등 까다로운 요구사항

실수의 대가

누락·오류 시 입찰무효, 계약해지, 행정처분으로 직결

전문인력 공백

브로커나 무자격 컨설턴트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



A사의 뼈아픈 교훈

유효기간 만료, 협정서 오류, 규격 불일치로 1년간 입찰 참 가 제한

전문 인력이 있었다면 예방 가능했던 사례

자격의 성격과 차별성

국가기술자격

조달청·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이 협력 운영 \rightarrow 공신력 확보

활용성

입찰 가점, 계약 담당자 전문성 인정, 공공기관 채용 우대 가능

차별성

- 변호사·회계사 등 고난도 전문자격 대비 진입장벽 낮음
- 실무 역량 검증 중심 → 현장에서 바로 활용 가능

국가기술자격의 차별성



공신력 확보

조달청 고용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협력 운영으로 국가 차원의 인정



실질적 혜택

입찰 가점, 계약담당자 전문성 인정, 공공기관 채용 우대



진입 장벽 없음

변호사 회계사와 달리 응시자격 제한 없이 실무 역량 중심 평가

시험 제도와 운영체계

설명회에서 공개된 시험 구조는 꽤 실무적이었습니다.

*현장 문제 중심 설계: 입찰요건 해석 오류, 계약특약 미파악, 검수 누락, 민원 대응 미숙 등

필기 조달 이해 / 계획·분석 / 계약관리

실기 사례 중심의 필답형 문제 \rightarrow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보는 방식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응시자격 제한 없음이었어요.

기업 대표, 실무자, 공공기관 직원, 취업준비생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필기

객관식 3과목 (조달 이해 / 계획·분석 / 계약관리)

실기

사례 기반 필답형 문제 (실무 해결 능력 검증)

합격 기준

필기 평균 60점(과락 40점), 실기 60점 이상

응시 자격

제한 없음



시험 구성과 합격 기준

01

필기시험

공공조달 이해 / 계획·분석 / 계약관리 3과목 객관식

02

실기시험

공공조달 관리 실무, 사례 기반 문제해결 능력 검증 필답형

03

합격기준

필기 평균 60점·과목별 과락 40점 미만, 실기 60점 이상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

2026년 하반기 첫 시험 예정

매년 2천 명 이상 응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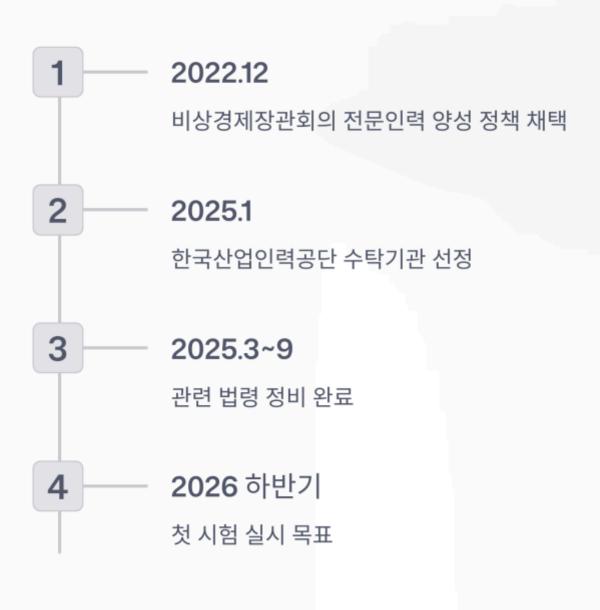
제도 정착 후에는 기업과 기관에서 "없으면 안 되는 자격"으로 자리잡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었어요.

수요 전망

거래규모 225조, 기업 60만, 발주기관 7.1만 중 상당수가 전담 인력 부재 연간 2천 명 이상 응시 예상

*응시자 범위: 기업 대표·계약 담당자·공공기관 직원·취업 준비생 등

추진 일정



기대 효과

기업

실수·처분 예방, 계약 이행률 제고, 신뢰도 및 경쟁력 강화

발주기관

민원·분쟁 감소, 서류 보완 절차 최소화, 담당자 전문성 향상

생태계 전반

투명성·공정성 확보, 브로커 개입 차단, 지속 가능한 조달 구조 마련

질의응답

질의&응답

시험 일정

2026년 하반기 첫 시험 시행을 목표로 확정 추진 중.

• 입찰 가점 인센티브

- 입찰 가점, 발주기관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여부는 현재 검토 단계**.
- 확정 시 조달청 및 관계기관 공지 예정

• 교육 콘텐츠

- o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일부 교육이 중복될 수 있음.
- 그러나 **표준 교재 기반 온라인 교육**으로 차별화 예정.
- 교재는 **PDF 형태로 업로드 제공**될 계획임임

• 실기 시험 방식・난이도

- 산업기사 수준으로 설계.
- **결합형(단답형+서술형)** 형태로, 실제 현장 사례 해결 능력을 평가

• 평가위원 관련

。 향후 조달청 **평가위원 선정 시 우대 자격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검토 중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설명회를 다녀오면서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생태계 혁신의 출발점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기업은 실수와 리스크를 줄이고, 기관은 민원과 분쟁을 줄이며, 전체적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수 있겠죠.

저도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바로 준비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공유드릴게요!



공공조달은 우리 경제와 국민 생활에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곧 시행될 공공조달관리사 제도는 단순한 자격시험을 넘어, 조달 현장의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을 높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과 준비 전략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학과 신입생모집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2026학년도 공공조달학과 전국 5개 대학 모집 시작! -신설대학 리스트 총정리

? 2026학년도 공공조달학과 신입생 모집 소식! 공공조달 현장은 이제 단순한 구매와 계약을 넘어, 국가 ...

blog.naver.com



<u>공공조달지도사, 공공조달관리사? 조달자격증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u> 공공조달교육, 학사과정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1분도 안되는 영상으로 바로 확인하기!! 공공조달 ...

blog.naver.com



공공조달학과 학사일정 및 2026년도 모집 안내!

'원가분석사, 경영지도사, 공공조달관리사!' 다양한 공공조달시스템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충북...

blog.naver.com

전문경영학사 과정

- ☑ 전국 유일의 공공조달-공공입찰 특성화 학과
- 온-오프라인 수업으로 재직자 현업 병행
- ☑ 국가장학금+대학 장학금 지원제도
- 🗹 조달청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교수진 전문 교육
- ☑ 공공조달관리사(2026년 조달청·산업인력공단 시행 예정) 자격증 대비

조달청, 공공조달학과 신설(*국가공인자격증-공공조달관리사)

국내 최초 공공조달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 다들 들으셨나요? 벌써 공공조달학과 신설 소식을 듣고 여러 ...

blog.naver.com

